

오피니언

기고

시민교육이 '국제 광주' 만든다



김성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자 광주에서 가장 먼저 했던 시민교육 중 하나가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시내 곳곳에 한글 강습소가 생기고 변변한 교재가 없어 임시방편으로 경지에 한글교본을 등사하여 교육했다.

1945년 11월 22일자 1면에 '국문철자법에 위반된 문구(文句)가 있었으니 이것은 활자(活字) 부족으로 불가피한 일이었으니 양해해 달라'는 사고(社告)를 낼 정도로 열악했다. 해방 2년 후인 1947년 10월 전라남도 학무국이 조사한 것을 보면 13세 이상 도민 203만명 가운데 42%인 86만명이 문맹(文盲)이어서 문맹일소운동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맹률이 거의 0%에 이른 오늘날의 성과는 67년 전에 시작된 한글 시민교육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한 해가 다르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정보량이 급격히 팽창하여 이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면 문자해독을 할

줄 알더라도 사회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문맹(新文盲)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20대의 중등교육 이수 비율은 95% 이상으로 세계에서 최상급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이후 시대에 맞춰 재교육을 받는 비율은 OECD 국가 가운데서 최하위 수준이어서 결국 젊었을 때 얻은 졸업장이나 자격증 하나를 밑천으로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을 가지고는 21세기 지식사회-국제화시대-문화예술시대에 발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시민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했을 때 보니 우리의 자치센터 같은 곳이나 종교등학교 시설이 성인교육 공간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꽃꽂이부터 공작기계 교육, 시사문제 학습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영국도 재원 마련이 역시 문제였다. 하여 이런 시설을 방문한 여왕이나 왕족들이 내놓은 금화(金貨) 한 원을 경매에 붙여 나온 수익금을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수 학점을 주기도 했다.

결국 오늘날 시민교육은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면서, 급변하는 세상 속

에서 새로운 지식과 능력,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의식도 향상된다.

광주는 2015년이면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고, 곧 이어 문화전담이 개관되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대가 열린다. 외국은 많은 젊은 스포츠맨들이 다년간 뒤에는 문화예술 관련 인사들의 해마다 줄줄이 광주를 방문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이 광주라는 도시 재창조의 기반이 될 것이다.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과 외국인들은 광주의 역사, 그리고 5·18, 문화예술 현황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 시민들은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다른 나라 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광주가 호남의 삶과 문화가 압축된 거점도시로서 의향(義鄕), 예향(藝鄕), 미향(味鄕)을 총칭하는 삼향(三鄕)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시민은 많지 않다. 또 우리 지역의 문화를 잘 정리해 두지 않으면 외국인들은 영어로 번역되어있는 한국소개 책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해하고 광주는 그들이 직접 본 것 외에는 점차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은 광주와 호남의 삶(문화)을 학습하고, 나아가서 직접 소개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시민교육도 시대에 맞춰 다양화 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민간단체가 북구청의 지원을 받아 6년째 계속해 온 '광주 정신계승 시민대학'의 경우 호남학, 의병, 학생독립운동, 5·18민중항쟁 등 광주의 역사로부터 전라도 문화, 아시아와 통하는 광주, 시(詩)로 만나는 광주, 창의문화도시 광주 등의 주제까지 넓혀가자 초기에는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부회회장 등으로 채워졌던 공간이 요즘에는 북구 주민은 물론 광주시민으로까지 확대되어 참여하게 됐다.

수준 높은 시민은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바람직하다. 전 문성을 갖춘 단체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이 일에 적극 참여하면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

해방 직후 시민교육을 통해 문맹률을 떨어뜨렸던 것처럼 이제는 시민교육으로 문화의식을 향상시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광주가 다시 한 번 빛을 발했으면 한다. <지역활성화연구소장>

시설

영광원전 잦은 사고, 지역민 불안감 크다

영광원전 5호기가 2일 오전 10시 45분경 또다시 고장을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다. 5호기는 2002년 5월 상업운전에 들어간 이후 현재까지 다섯 5개 기보다 많은 총 17건의 고장이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영광원자력본부는 "이번 고장이 증기 발생기 저수위가 나타난 것으로, 발전소 안전성이나 외부환경에 영향이 없다"면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고 원인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고 발전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잦은 고장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이다. 5호기에 서만 매년 1.7건 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에도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됐으며, 같은 해 1월에는 정비를 마친 지 4일 만에 고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사고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모터 안에서 30cm 길이의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 있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져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영광원전에서 발생한 불시 정지 사고는 연평균 4~5건이나 되고, 대부분 시설 노후화와 부주의가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안전성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핵연료의 핵분열 연쇄반응을 제어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인 제어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자연재해나 고장 등과 맞먹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국내 원전의 안전성과 운영실적 수준은 세계 최고일 정도로 완벽하다고 하지만 지난 1984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0년 일본 후쿠지마 원전사고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원전에선 한 치의 실수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원전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원전사고에 '사후유방문'이란 있을 수 없지 않나.

'사무장 병원' 보험사기 발본색원 나서야

보험설계사가 의사를 고용,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술을 베풀어야 할 의사가 범죄에 가담한다. 이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피해가 전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지인 또는 임원 전력이 있는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요양급여금을 가로채고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숙청 '사무장 병원'인 광주 K 한방병원 기획실장 이모(보험설계사)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위 입원으로 의료 실비 및 입원 일당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 가입자 20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 아들 친구인 한의사를 병원장으로, 자신은 기획실장으로, 여동생을 홍보과장으로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인 또는 병원 임원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 입원 환자를 모집했다. 이씨의 동생은 상담 과정에서 허위 입원을 권유, 실제 입원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특정 병실에 허위 환자들을 서류상 입원 처리했다. 또, 1일실인 특실에 수십 명을 허위로 입원 처리하는 방법으로, 205명을 모집해 요양급여금 1억9000만 원을 편취했다.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범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씨가 7억4000만 원의 수익금을 가져가고 남편·동생들 병원을 취직시켜 수익 원대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범죄를 덮기 위해 일가족을 동원한 것이나 다름 바 없다.

나이동 환자의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데다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그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경찰은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발본색원해야 하며, 보험당국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박홍근

사직공원은 광주 도심에 있는 소규모공원으로 시민들의 휴식처다. 이곳엔 선조들이 나라의 안전과 풍년을 기원하며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사직단이 있다. 이로 '사직'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일본은 강점기에 우리네 교유문화를 없애기 위해 사직단의 격을 낮추고 공원으로 삼았고, 우리는 한발 더나가 1960년대 말에 이곳의 사직단을 헐고 동물원을 만들었다. 팔각정도 1973년에 완성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70~80년대 공원 속 동물원과 야외수영장, 팔각정이 있는 이곳은 광주시민들과

사직공원 팔각정의 운명

인근 주민들의 놀이와 소풍, 휴식과 전망의 기능을 톡톡히 했다. 또한 기념사진의 배경도 되었다.

1991년 동물원은 우치공원으로 옮겨졌고, 야외수영장도 없어졌다. 이후 사직단과 숲이 복원되어 다시 사직공원이란 이름으로 오늘 우리 곁에 있다. 현재는 시민들의 휴식과 운동, 치유의 숲이 되어 도심 속 공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중 야외 수영장 일부 스탠드와 변형된 팔각정은 지금도 그렇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 풀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장소에 대한 생각이다. 현 팔각정이 있는 곳이 현대식 전망대가 있을만한 공간인가? 이미 40년간을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역사·문화적 가치는 충분하다. 그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이곳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는가? 문제는 이런 흔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우리들이 문제지, 팔각정을 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 풀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기억과 흔적에 대한 가치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이야

기가 있다. 옛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다 없애면 무엇을 보고 이미 우리의 삶과 추억과 기억 속에 있는 이곳만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는가? 이미 40년간을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역사·문화적 가치는 충분하다. 그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이곳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는가? 문제는 이런 흔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우리들이 문제지, 팔각정을 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 풀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장소에 대한 생각이다. 현 팔각정이 있는 곳이 현대식 전망대가 있을만한 공간인가? 이미 40년간을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역사·문화적 가치는 충분하다. 그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이곳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는가? 문제는 이런 흔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우리들이 문제지, 팔각정을 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 풀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기억과 흔적에 대한 가치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이야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재능기부, 나눌수록 더 커진다



김원호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협력·상생·통합'이다. 이 가치들은 세대별·소득별로 벌어진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협력·상생·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은 바로 '내가 가진 재능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 바로 '프로보노'이다.

'프로보노'란 '공익을 위하여'라는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이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공익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자문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미국에서는 '프로보노'가 주로 변호사가 소외된 계층에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미국 변호사협회는 모든 변호사에게 연간 50시간을 의무로 '프로보노'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인 SK에서는 직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적 기업의 경영을 지원해 오고 있고, 다음커뮤니케이션도 IT기술을 활용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상미디어 촬영·제작·편집과 관련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등 기업단위의 재능기부 공헌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자발적인 '프로보

노'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호남연수원에서는 프로보노 활동을 위해 '호연지기'('호남연수원 지식나눔 기부단'의 약자)를 발족, 운영하고 있다.

호남연수원은 '호연지기' 활동을 통해 연수를 운영하면서 얻은 지식,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과 사회에 환원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으뜸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선정한 일하기 좋은 알짜 기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이며 강의는 직접 강의 장소로 기부단이 찾아가 '독서를 통한 자기계발, 자기혁명', '중소기업을 위한 인문학 강의', '소통의 달인을 위한 직장인의 에절과 커뮤니케이션' 중 하나의 주제로 2~3시간 진행한다.

또한, '프로보노'는 나눔을 전달받는 사람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프로보노'를 통해 지식 나눔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큰 만족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연수원에서는 프로보노 활동을 함께 할 분야별 전문가들을 언제나 환영한다.

나눔은 나눌수록, 기쁨은 더 커진다는 말이 있다. 이는 나눔을 주는 사람, 그리고 누리는 사람을 통해 '나눔의 패러다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빠른 속도로 목표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를 통한 목표 달성으로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은 사회이다. '먼저 앞서나가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가치이다.

호남연수원은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현할 우리 지역의 으뜸기업 그리고 재능기부할 전문가와 언제든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장>

에 끌려갔다.

물론 자기가 타는 차를 눈 앞에서 견인 당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다. 당장 시간 뺏기고, 돈 날리고, 불쾌하고, 심지어 고급차라면 차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노심초사한다.

하지만 주차위반 사실은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 특히나 보관소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 그분들 역시 똑같은 시민이고 아파고 남편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들이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자동차 보관소에서 이런 행패를 부리거나 막무가내 식으로 행동하는 일은 저지했으면 한다. <▲이기훈·광주시 북구 오치동>

無等鼓

은퇴하면 고향으로 돌아가 편안히 남은 인생을 즐기는 것이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국을 대표하는 시인 도연명은 41세 때 진나라 팽택 현령으로 재직하던 중 독유(감독관)에게 굽실거리야 할 상왕이 되자 "내 어찌 쌀 5말을 위해 어린이에게 허리를 굽히겠는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부임 80일 만에 관직을

하다'라는 의미의 수(瘦)자를 써서 수둔(瘦頓)이라 불렀다.

반면, 값비싼 양초를 뿔감으로 쓰며 부(富)를 자랑했던 진나라 때의 거부 석송은 자신의 은퇴생활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관직생활을 한 지 여든 5년, 자리에서 물러나니 많은 돈이 있었네. ... 아침에는 사냥을 나가고 저녁에는 책 읽기를 즐긴다네. 요리사가 매끼 밥을 지

귀거래사



어주고 가정부가 가사를 돌보네. 낭랑한 노랫소리에 흰 구름은 물흐르듯 흘러가네. 은둔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비둔(肥遁)을 고려해야 하리.'

일에 얽매어 고생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자유로우며, 물질적으로 풍요한 은퇴 이후의 생활이 바로 '비둔'인 셈이다.

가족이나 적은 월급으로 가족 부양하고 자식 결혼시키느라 평생 이렇다 할 재산을 모으지 못한 모든 필부들의 소망이 바로 '비둔'이었지만 과연 몇 명이나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눈앞이 아득할 뿐이다. <홍행기 정치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주차위반 인정 안하고 차량보관소서 행패 부려서야

얼마 전 주차 위반으로 인해 자동차가 견인되는 일을 겪었다. 주차 위반을 했으니 차가 견인될 수도 있는 것이고, 스티커도 발부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막상 견인차 보관소까지 찾아가려고 하니 화도 나고 시간도 걸리고 돈도 손해 보고 이만저만 속상한 게 아니었다.

보관소에 가서 차를 찾으려고 들어갔더니 난리가 났다. 어떤 운전자가 차를 견인 당해서 차를 찾기 위해 보관소에 와서는 그 문을

못 사이고 보관소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운전자는 "왜 내 차를 끌어 갔느냐. 주차 위반 차량이 내차 뿐이더냐. 사람 봐가며 끌고 가냐. 왜 외제 차는 그냥 두고 우리 같은 서민들 차만 끌고 가냐. 차를 끌고 가기 전에 주차시설이 제대로 만들어 놔야 할 거 아니냐. 이 차를 찾으러 오느라고 나는 오늘 일당 다 날렸더니,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등 화가 나는 데로 속사포처럼 쏟아부었다.

일전에 서울에서 한 남성이 차량 견인 보관소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차돼 있던 자기 차를 몰고 와서 갑자기 보관소 사무실을 들이받은 적이 있었다. 차를 견인당한 뒤 화를 못 참아 막무가내로 몇 번이나 건물을 들이받은 것이다. 그 사고로 직원 한 명의 다리가 부러졌다고 한다. 그날 나 온 TV뉴스를 들어보니 보관료가 비싸다며 혈중알콜농도 0.13%의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거라 한다.

또 다른 영상은 보관소에 찾아와서 견인에 항의하던 한 남성이 말리는 여성을 밀치더니 주먹을 휘두르며 직원들을 위협하는 장면도 나왔다. 결국 이 남자는 출동한 경찰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